

소네 텐만구 신사 가을 축제

매년 10월 13일, 14일에 총무계가 2톤이 넘는 형형색색의 수레 11대가 소네 텐만구 신사를 지나 시내를 행진합니다. 해가 진 후에는 야간조명이 빛납니다.

소네 텐만구 신사는 수레(신여)의 지붕에 이불을 깐 독특한 이불 수레의 선구자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수레는 분카·분세이 연간(1804~1830)의 것으로 보입니다. 1861년의 에마(소원 등을 적어 봉납하는 나무판)에는 소네식의 수레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처럼 화려한 장식을 하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다양한 축제 의식에는 남성들이 깃발 장식이 달린 대나무 막대를 바닥에 내려쳐 멀리 있는 관중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는 '다케와리', 어린아이의 이마에 글자를 쓰고 모자나 사냥 의상을 입혀, 말에 태워 신사에 들어가는 '히토쓰모노' 등이 있습니다. 히토쓰모노는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신을 더 잘 끌어당긴다는 생각에서 행해집니다.